



모든 세대를 문화로 잇다... '주말은 청춘' 성료

광주공원 일대서 6회 공연 선보여 스트릿댄스·코스튠플레이 등 풍성 공연 실황, 지맵 미디어월 생중계 다양한 연령대 즐기는 문화 조성

낙후된 이미지의 광주공원 일대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공연 무대로 탈바꿈했다. 올해 첫선을 보인 청춘문화 프로그램 '주말은 청춘'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주말은 청춘'은 광주시가 '도시의 회복, 견고싶은 길'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광주문화재단과 함께 추진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4월 결성된 청춘문화기획단과 함께 기획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광주공원 일원에서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6차례 선보였다.

10월 주말 동안 스트릿댄스, 디제잉, 힙합, 코스튠플레이, 인디음악, 퓨전타악 등 여섯 가지 장르별 기획무대가 펼쳐졌다.

첫 번째 무대는 지난 5일 선보인 '스트릿댄스 연결'과 '디제잉 공감'이었다. '스트릿댄스 연결'은 국내와 중국, 대만, 필리핀 등 4개국 청소년 및 청년 스트릿댄서들이 광주공원에 모여 토너먼트식 왁킹댄스 배틀로 진행

됐다. 화려한 몸짓과 경합의 열기는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유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빛고을댄서스 소속으로 '배틀라인업 in 광주' 행사를 여러 차례 기획한 경험이 있는 이은지(32세) 청년기획자가 맡았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 '디제잉 공감'은 20년 이상 다양한 축제에서 디제잉 경력을 쌓아온 DJ춘디가 기획자로 참여했다. 댄스타임과 '보이는 라디오' 시간을 마련해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아닌 관객이 주인공이 돼 즐기는 무대가 펼쳐졌다.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자신만의 흥으로 댄스를 즐기면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체험했다.

12일 열린 '힙합 불꽃' 무대에서는 'EMESS(이메스)', 'J-tong(제이통)' 등 마니아 팬층을 보유한 개성 강한 힙합 뮤지션들이 등장했다. 소규모 공연장에서 일부 관객이 즐기던 힙합과 하우스 장르 뮤지션들의 무대가 광장에서 펼쳐지자 마치 넓은 페스티벌 야외무대를 재현하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다. 이 무대를 함께 준비한 김다혜(31세) 기획자는 현재 언더그라운드 로컬 무브먼트 '클럽 심해'를 운영하고 있다.

13일 '코스튠플레이상'에서는 웹소설이나 게임,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이 현실 무대에서 재현됐다. 청소년과 20대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스스로 창작하고 준비

해 온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코스튠플레이라는 색다른 취미 문화를 알렸다.

행사의 열기는 19일 권선제 청년기획자가 광주의 인디밴드들과 함께 펼친 '인디뮤직-푸름'로 이어졌다. '투파이브', '립즈', '몽키피파르티', '더티라곤' 등 광주의 밴드들이 출연해 록페스티벌을 방불케 하는 무대를 선사했다.

마지막 무대인 20일 '퓨전타악 울림'에서는 '전통연희 그룹 자타공인'에서 전통 타악과 사자춤, '타악그룹 얼쑤'에서 퓨전타악을, '울림블로코'에서 브라질 타악연주를 선보이면서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주말은 청춘'의 청년디렉터로 참여한 김빛비(33)씨는 "평소에 공연이 펼쳐지리라 예상하지 못한 공간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포장마차에서 저녁을 즐기는 시민들까지 관객이 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처럼 청년들의 기획을 통해 광주의 예상치 못한 공간이 문화생활에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처음 선보인 주말은 청춘을 발판 삼아 내년에는 아마추어와 일반인들의 참여를 확대해 광주공원일대 청춘 문화 조성에 힘을 예정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bo.com

ACC-키르기즈 국제협력공연 '세메테이'

26~27일 ACC 예술극장 극장1 현지 전통음악과 한국 예술 조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26~27일 오후 2시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키르기즈 국립극장과 국제협력공연 '세메테이(사진)' 시범공연을 선보인다.

'세메테이'는 키르기즈 민족의 대서사시인 '마나스'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구전된 중앙아시아 영웅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무대에 옮긴 공연이다.

'마나스'는 키르기즈의 영웅 마나스와 그의 후손들의 모험과 투쟁을 담은 세계에서 가장 긴 구전문학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공연은 고대 실크로드 시대를 호령했던 마나스의 아들 '세메테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번 시범공연은 키르기즈공화국과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협력해 50분간의 오브제 음악극으로 표현된다. 키르기즈 전통음악과 한국 예술의 색다른 조화가 돋보일 예정이다. 특히 현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키르기즈 배우들과 한국 배우들, 프랑스 음악감독과 키르기즈 연주자들이 만들어내는 예술적 협력이 관객에게 이색 경험을 선사한다. 세메테이 시범공연은 전석 무료로 7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ACC와 키르기즈공화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 및 국제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공적개발원조(ODA)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OECD에서 지정한 수원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ACC는 지난 2022년부터 ODA를 통해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등의 문화자원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박찬 기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웹툰·영상 콘텐츠 공모전

전남지역민·대학생 등 대상 내달 5일까지 전자우편 접수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의 매력을 담은 참신한 콘텐츠를 모집하고자 '2024년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남지역 내 우수 창작자 및 전남의 문화, 관광, 자원들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통해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참가 대상은 전남지역 거주자, 전남소재 대학 재·휴학생으로, 공모 주제는 전남도의 문화, 관광 등과 관련된 웹툰 및 영상 콘텐츠이다. 주제는 자유주제로 제한이

없으나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소재 또는 이미 제작 지원사업이나 타 공모전에서 지원받은 작품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총 시상금은 700만원 규모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상장과 함께 △대상(2명, 100만원) △최우수상(4명, 65만원) △우수상(6명, 4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접수된 작품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작품의 대표성, 대중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12명(웹툰 6명, 영상 6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 결과 발표는 11월 중에 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수상자에게도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시상식은 11월 말 개최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11월 5일까지로, 진흥원 또는 전남콘텐츠코리아랩 누리집에서 제출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웹툰 작품 또는 영상물과 함께 전자우편(namdotour89@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도민의 창의성 역량이 발휘되어 도내 우수 창작자들이 발굴되길 바란다"며 "전남의 모습을 개성 있게 담은 독창적인 콘텐츠가 선정되어 지역 콘텐츠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

서울시향·얍 판 츠베덴·클라라 주미강, 광주서 순회공연

30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광주예술의전당은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대극장에서 기획공연 포시즌 '얍 판 츠베덴&서울시립교향악단 with 클라라 주미강'을 연다. 국내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인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음악감독 얍 판 츠베덴,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을 초

청해 강렬한 선율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얍 판 츠베덴 지휘자는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 및 홍콩 필하모닉 음악감독으로 활동했으며, 올해 서울시립교향악단 신임 음악감독으로 취임했다.

클라라 주미 강 바이올리니스트는 2009년 서울국제 음악콩쿠르, 2010년 인디애나 폴리스 콩쿠르, 샌다이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한 경력과 함께 23/24 시즌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솔로 리사이틀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세계 무대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시즌 '얍 판 츠베덴&서울시립교향악단 with 클라라 주미 강'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가격은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박찬 기자